

‘지배의 수단’ 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말·글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

본고는 기존에 진행 되어오던 ‘한말글 운동’에 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비판의 목소리와 그 나름대로의 대안을 정리한 글이다. 소시민적 운동에서의 탈피와 민중의 정서 및 생활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 글은 수원 캠퍼스 학생동아리인 ‘우리말 메아리’의 집단토론에 의거하여 집필된 글이다. <편집자註>

I. 들어가며

‘한말글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해가 지났다. 그간 수많은 선배들이 한말글 운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많은 시기와 고난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말글 운동을 하는 이들의 생각속에 과연 얼마나 올바른 운동관이 이뤄지고,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말글 운동’이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중요성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요즘 그 원인을 찾아내고, 지난 시기 우리의 노력을 반성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몸말

가) 한말글 운동이 지금까지 걸어 온 길

우리는 한말글 운동을 이야기 할때 항상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명제에 너무 매몰되어 ‘왜’라는 당연한 질문을 지나쳐 버렸다.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당위성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이 당연히 부여받아야 할 한말글의 여러 대상과 현상속에 있는 내부 모순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 모순을 추상적이고 비객관적인 상태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말과 글을 문화 유적 같은 고정된 물체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특히, 여기에 ‘한말글이 우리만의 것이다’라는 특질로 인해 민족적 자부심까지 결부되어 거의 맹목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꼴이 되어왔다.

그런데,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 하는 것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말과 글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편견으로 인해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텔리 계층이었기 때문에 말과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인층이 그들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말글 운동의 주체가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이중적 가치를 가진다. 변혁운동은 지배세력의 불리함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불리함을 차단하여 나가는 것이며 포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때 전체 운동선상에서 한말글 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중요한 이 변혁운동에서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변혁운동과 호흡을 함께 하는 한말글 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는 정치, 군사적 대미 종속화와 분단이라는 특수 요인과 때론 자본가의 강화에 따른 계급 모순의 심화라는 복합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변혁운동은 이 두모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두 모순은 말과 글에 그대로 옮겨져

쳐져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말글 운동은 한국 사회의 모순 해결을 통해서만이 한말글이 지닌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한말글이 지닌 모순의 해결 방법이라는 변혁운동적 방법론에 기초하는 변화발전의 역사적 합법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 결국, 한말글 운동의 목적은 바로 변혁운동의 목적과 같으며, 한말글 운동이 변혁운동에 복속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목적에 맞는 것이다.

다)한말글 운동이 계급성을 지녀야 하는 이유

한말글 운동은 지금까지는 무계급적 운동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무계급성은 운동 주체들

의 무계급성에 기인했으며 이는 출발점의 잘못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결과 한말글 운동은 올바른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회와 학공부에 종속되거나 결과지 정도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아무런 입장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는

진보적 발전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말글 운동은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주체를 형성하는 일반적 운동 범주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 주체가 바로 노동자 계급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계급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시작된 ‘조국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가장 커다란 민족적 과제로서 분단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통일 노력 속에서 이름 없이 산화해온 많은 ‘통일애국지사’들이 있으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김용중(1898~1975)선생(이하 경칭생략)이다.

김용중은 일찌기 상해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해 조선 이주한 1세대의 도움을 받으며 하버드대학, 남가주대학,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당시 그

는 동포들의 도움에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힘겨운 노동속에서 대학공부를 계속했다고 한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일제의 압제와 조선의 처지를 이국인들에게 알리는 일본의 황금통치란 제하의 글을 ‘보스턴 선데이’에 게재하여 유창한 영어로 일제의 화정을 날카롭게 고발한 적도 있다.

이후 김용중은 주로 언론을 통해 일제때는 독립운동을, 해방후

무계급적인 운동으로 사회변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네 가지 뒤돌아보면 적 역시 관념적 분석을 속에서 나온 문제이지 결코 근본적 분석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한말글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고, 이것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이런 집착은 목적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다. 우리는 말글이 사회에서 어떠한 구실과 지위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모든 운동은 계급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말글 운동도 운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계급성을 가져야 한다. 운동이 계급성을 갖는 이유는 운동의 의미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란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주체의 형성 과정이며, 이러한 목적의식적 주체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잠재적 목적지향성을 일깨우며 스스로 대중과 통일되는 세계로 나아가

주체를 노동계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들일 수 있고 또한 전체 변혁운동의 주체이며, 참 말글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말글의 당파성과 노동계급의 당파성이 일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노동계급이 갖는 목적이 우리가 갖는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은 변혁의 주체이며, 나아가 이 땅의 주인이다.

따라서, 이들의 말과 글이 진정한 말과 글이며, 이들이 부러뜨리고 다듬을 때만이 우리의 말과 글은 비로소 주인을 찾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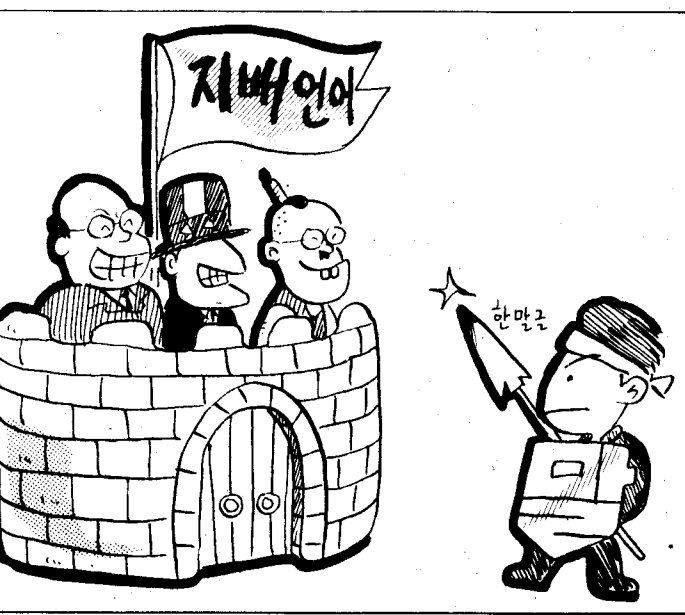
소수의 지배집단의 소유해 버린 말, 글 다수의 민중이 쓰도록 강요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구체적으로 민중은 제국주의 문화에 스스로 오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가기 바쁜 그들은 제국주의 문화가 강요하는 현실저편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 민족 현실로부터 떨어지기를 거부한다.

또한, 외국어를 섞어 쓸 만큼의 외국어도 모를과 동시에 천박하고, 쌍스럽게 들리도록 그들의 말과 글을 비틀어던 척도로 바라보는 것조차 거부한다. 이들이 쓰는 말을 ‘문명어’나 ‘아만어’ 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종속된 문화의식의 일부본일 따름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라) 한말글 운동의 임무

한말글 운동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어떠한 착취와 탄압속



에 있는가를 일깨우는 것-이것은 신문이나 방송의 거짓 말, 글을 비판함으로써 얻어질 것이다.

조국이 처한 열매없는 현실-이것은 말과 글의 심각한 오염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 지배층에 의해 더럽혀지고 오염된 말과 글이 표준어처럼 되는 현실-이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깨끗이하는 의식적 행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말과 글이 안고 있는 모순을 통해 노동계급을 각성시키는 것이 사상 투쟁이며,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올바른 말과 글을 쓸 수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런 성과물들이 사회의 여러 근로대중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부여 받으며, 모든 근로 대중은 한말글이 가진 모순 해결을 동참하게 되고 이것이 변혁운동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되는 것이 바로 사상투쟁이라

할 것이다.

III. 마치며

우리는 항상 진리를 옹호하고 오류를 수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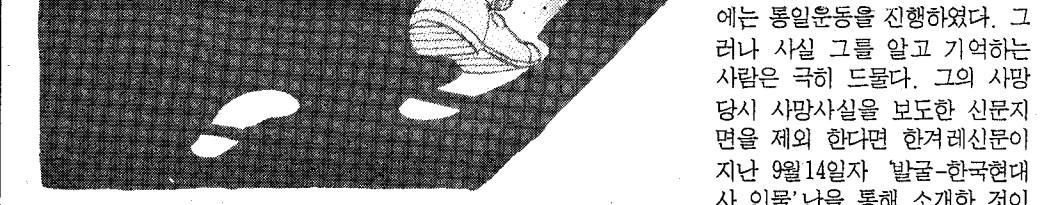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민중의 이익과 일치하며, 오류는 민중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한말글 운동이 민중의 이익과 일치되는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 고민을 통해 우리가 겪고있는 오류들을 수정해야 하며, 관념적인 운동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이며 객관적 운동의 사를 열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에 충실하며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합당한 운동론이 완성되고 그 운동의 관상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뜻있는 이들의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

김 병 주 <임학·2>

분단을 넘어선 인물의 발자취



— 김용중과 ‘중립화 통일론’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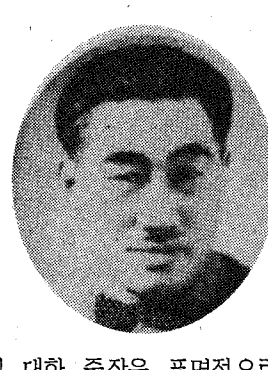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내외 언론 매체로 독립 통일운동 전개

민족통일의 자주적 관점 정립을 강조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용중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독립애국지사로서는 물론이고, 민족통일운동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족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개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서 영자 월간지 ‘The Voice of Korea’를 창간하고 ‘조선문제 연구소’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같은 명칭의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 하루 3~4시간씩 방송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세계민족간에 조선의 이상과 목표, 희망을 전달하여 상호 이해하도록 하며, 우리의 창조하는 것”이란 창간지언론으로 시작, 60년대초 폐간 될때까지 월간 ‘The Voice of Korea’는 언론인으로서는 김용중의 활동과 강렬한 독립의지는 물론 외세의 간섭없이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통일관까지 그의 정열적인 생애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통일노력은 북측으로 부터는 ‘수정주의자’, 남측과 동포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로 부터는 ‘친북주의자’로 공격당한다. 그의 통일 노력은 지금 현재에도 조국통일운동의 근간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 있으며, 그의 운동방식은 제의 동포를 중심으로 한 유법민법, 호주민주주의를 통해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범민족대회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김용중의 주장과 같이 우리민족의 통일은 자주적인 관점에서 자주적인 실천으로 진행 되어야만 한다. <기획부>

1960년대 그의 생애에서 통일 의지가 절정에 달하는 때로 기록할 수 있다. 당시 그는 김일성수상의 남북조선 연방제안 제시를 계기로 각각 남북한 정국수뇌 앞으로 자신의 ‘중립화 통일안’을 골자로운 공개서한을 보낸다. 이 제안의 내용은 남북한간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⑦



“오빠! 태양의 힘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때, 우리 곁에 가까이 왔기에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치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태양은 정말 귀중한 것이지.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없이 수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태양을 이용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일거야.

‘솔라’라 불리는 이 태양열 자동차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햇빛을 전기로 바꾼 다음 그 힘으로 모터를 돌려 달리게 된단다.

이 태양열 자동차는 해가 있는 대낮에만 힘을 얻을 수 있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단다.

속도가 커서 태양에너지에 대한 막사가 되는 날, 우리나라도 태양열 자동차를 가지게 될지 모르지.

어머니? 태양열 자동차 발명가 박숙희 - 정말 멋진 고지식한 일이잖나.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대 전자공학과 2년 이 중우

현대자동차